

편집 및 발행인 : 조정희 원장 ·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총괄 : 김동환 · 감수 : 이연경 · 전화번호 : 051-797-4913 · E-mail : kdong@kmi.re.kr

목 차

▶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

- 인도발 홍해·수에즈 항로 복귀 가시화...환적 관문 인프라도 선제 가동

▶ 유럽 물류시장 동향

- 루마니아, 몰도바 기우르줄레슈티항 지분 100% 인수 추진

▶ 미주·중남미 물류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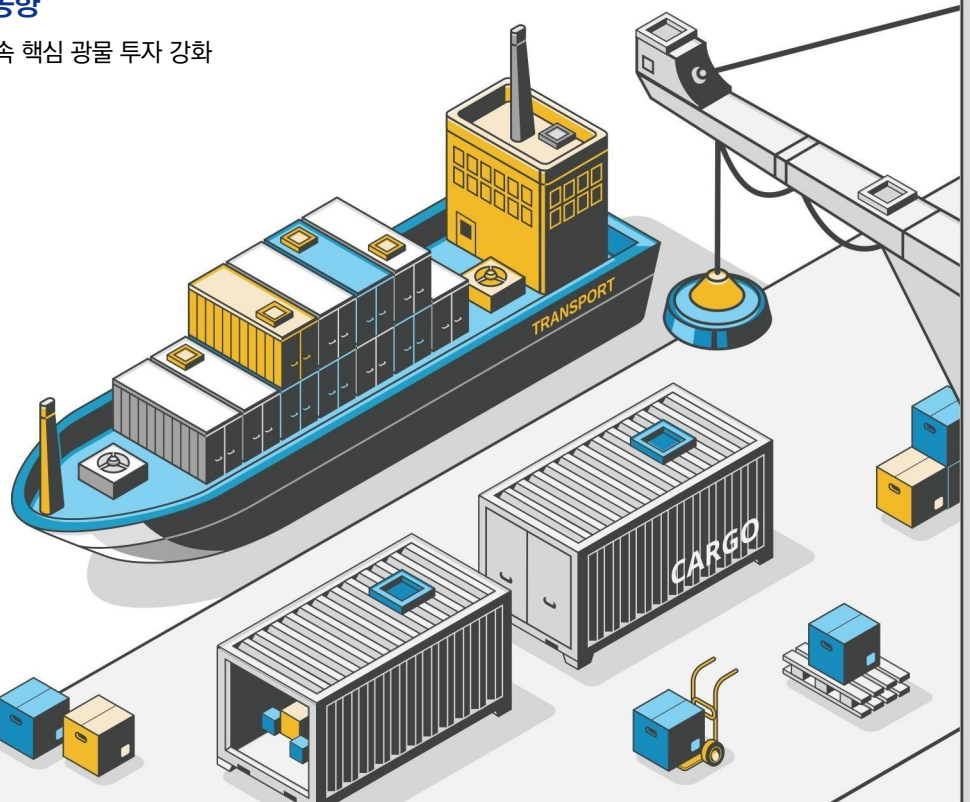
- 美 오클랜드항, 안정적 실적 유지...캐나다 항만 부상에 경쟁 압력 확대 전망

▶ 글로벌 물류시장 동향

- 미국·EU, 중국 견제 속 핵심 광물 투자 강화

▶ 공지사항

- 「국제물류 정보포탈」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

인도발 홍해·수에즈 항로 복귀 가시화... 환적 관문 인프라도 선제 가동

- ▶ 인도-중동-지중해(India-Middle East-Mediterranean) 항로에서 홍해·수에즈 운하 복귀 움직임 본격화

 - 머스크와 Hapag-Lloyd가 참여하는 Gemini Cooperation의 인도-지중해 서비스 (ME11/IMX)가 조만간 홍해·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힘
 - 해당 서비스는 제벨알리(두바이), 문드라 및 나바셰바(인도), 살랄라(오만), 당헤르(모로코), 발렌시아(스페인), 포트사이드(이집트)를 기항하며, 인도발 지중해 화물을 직접 연결하는 주요 항로임
 - Gemini 서비스는 머스크의 MECL, CMA CGM의 Indamex에 이어 홍해 통과를 재개하는 인도발 주요 노선 대열에 합류하게 됨

- ▶ Gemini, 인도발 3개 서비스 운영

 - 2개 서비스는 나바셰바와 문드라를 통해 인도 북서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, 나머지 1개 서비스는 첸나이 인근 엔노어(Ennore)를 통해 인도 남동부 지역을 연결함
 - 첸나이 지역 포워더들에 따르면, 인도 수출 전반의 둔화로 인해 엔노어발 선복 가동률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, Gemini는 '26년을 대비해 해당 항로의 선복 배정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

- ▶ 이러한 항로 복귀 움직임은 인도발 화물의 환적 구조와 직결

 - 인도-지중해 항로에서 홍해·수에즈 운하 통과 여부는 항로 거리, 운송 기간, 환적 지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
 - 희망봉 우회가 일반화됐던 국면에서 벗어나면서, 인도발 화물은 다시 중동-홍해 연계 환적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

- ▶ 홍해·수에즈 관문에 위치한 이집트 항만 인프라도 항로 복귀에 맞춰 가동 시작

 - 이집트 소크나(Sokhna)항에서는 Red Sea Container Terminals(RSCT)가 이집트 최초의 반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장함
 - 해당 터미널은 허치슨 포트, CMA 터미널스, 코스코 슈핑 포트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개발했으며, 이집트 정부와의 30년 운영권 계약을 기반으로 추진됨
 - RSCT 1단계 시설은 안벽 1,200m, 수심 18m, 연간 170만 TEU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, 향후 안벽 2.66Km에 연간 처리능력 350만 TEU까지 확장할 계획임

- ▶ RSCT는 인도발 화물의 핵심 환적 관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입지 조건 보유

 - 소크나항은 수에즈 운하 남단 입구 인근에 위치해 인도-중동-지중해 항로를 잇는 전략적

요충지임

- 고속도로와 철도망을 포함한 이집트 내륙 운송 인프라와 직접 연결돼, 환적 및 연계 운송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글로벌 선사들이 참여한 터미널이라는 점에서, 인도발 화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

▶ 수에즈 통항량 증가도 항로 정상화 흐름 뒷받침

- 해운 컨설팅사 Drewry에 따르면, 1월 11일로 끝난 주간 동안 총 26척의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으며, 본 수치는 최근 5주 중 가장 높음
- 이는 '23년 말 이후 이어졌던 홍해 회피 기조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음

▶ 인도 물류 관점에서 홍해·수에즈 항로 복귀는 '가능성'에서 '실행 국면'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

- 선사들이 인도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항로 복귀를 준비하는 가운데, 환적 관문 항만도 이에 대응해 처리 능력 확충에 나서고 있음
- 이에 따라 인도발 지중해·유럽 연계 물류는 향후 항로 선택, 환적 전략, 운임 구조 측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

▶ 인도발 홍해·수에즈 항로 복귀는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비상 대응 국면에서 관리 가능한 정상화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

- 주요 선사들이 인도발 항로를 중심으로 홍해·수에즈 경유 운항을 재개하거나 준비하고 있어, 해당 항로가 선사 운영 차원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
- 항로 복귀와 동시에 수에즈 관문 항만 인프라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은, 해상 물류 정상화가 운항 재개를 넘어 구조적 대응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줌
- 이에 따라 인도발 물류 흐름 변화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운송 비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

참고자료: <https://www.joc.com> (검색일: 2026.01.20.)

루마니아, 몰도바 지우르줄레슈티항 지분 100% 인수 추진

- ▶ 루마니아 항만당국은 자국의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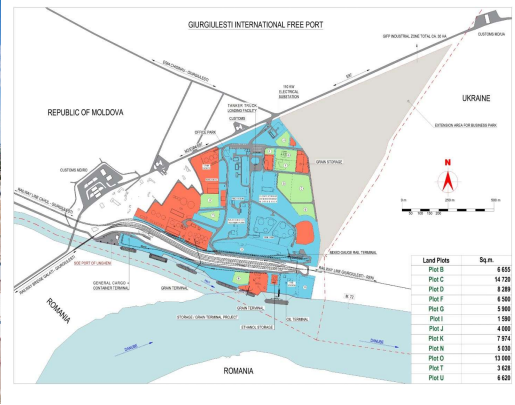
 - 루마니아 항만당국은 흑해지역에 위치한 콘스탄차항과 다뉴브 회랑을 연결해 물류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해운·항만물류 기능 확장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
 - 지우르줄레슈티항은 몰도바,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간 내륙수로 정기 피더 서비스의 주요 결절점(Node) 기능을 담당함. 루마니아의 콘스탄차항은 해당 네트워크에서 관문 역할을 수행함
 - '24년 기준 지우르줄레슈티항의 물동량은 2,579천 톤으로 콘스탄차항의 5,750만 톤 대비 미미한 수준이나, 지우르줄레슈티항 대상 해외투자 확대 추진은 루마니아 항만당국의 해외 물류 인프라를 전략적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임

- ▶ 루마니아 항만당국은 지우르줄레슈티항의 민간 터미널운영사 Danube Logistics의 지분 100%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

 - 지우르줄레슈티항은 다목적 항만으로 Danube Logistic, SC Trans Cargo Terminal, SC Trans Bulk Logistics의 3개 민간 터미널운영사가 분담해 운영하고 있음
 - '26년 1월 기준 Danube Logistics 지분 인수를 위한 루마니아 항만당국의 주주총회 승인, 거래조건에 대한 최종 확정 절차 일정이 남은 상황임
 - 총 투자규모는 약 6,200만 달러에 달하며, 추가적으로 터미널 운영사 지분 인수 후 항만인프라 개발에 약 2,8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임
 - 해당 인수에 대한 매매계약 최종 승인은 '26년 2월로 예상됨

- ▶ 루마니아 항만당국은 Danube Logistics SRL 인수를 추진하면서 지우르줄레슈티항 개발 계획을 수립 중

 - 현재 지우르줄레슈티항은 부지 면적 552,000㎡, 부두 길이 1,200m 내 선석 5개, 최대 흘수 7.0m로 부지 면적은 1,200,000㎡로 확장될 예정임
 - 현재 시점에서 인프라 개발에 대한 세부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나, 터미널 운영 방향성, 인프라 및 장비 현대화, 철도 연계성 강화를 주요 투자 목표로 설정함
 - 또한, 개발 계획은 컨테이너 터미널화에 중점을 두고, 곡물 및 액체 화물 저장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은 낮다는 점을 명시함. 또한, 컨테이너를 처리하기 위한 장비 대수, 제원 사항을 추후 구체화할 계획임
 - 철도 인프라 기능 강화는 벤더, 바사라베아스카, 에틀리아, 지우르줄레스티 철도 회랑과 연계되기 때문에 투자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

지우르줄레슈티항의 입지와 가능 배치 현황


자료: <https://www.danube-logistics.info>, <https://www.portseurope.com> (검색일: 2026.01.20.)

- 루마니아 항만당국의 해운·항만 인프라 투자 확대는 흑해 연계 물류회랑 활성화 및 자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
 - 다뉴브-흑해 항로의 경우 역내 물류회랑 내 안정된 대체 경로 선택이 가능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됨
 - 또한, 지우르줄레슈티항을 거점으로 흑해와 다뉴브가를 연계한 해상-내륙 연계 인터모달 비즈니스 모델 구상도 가능할 것임
 - 추가적으로, 지우르줄레슈티항 현대화 프로젝트 측면에서 물류 IT 솔루션 제공업체 대상 신규 시장 진입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美 오클랜드항, 안정적 실적 유지... 캐나다 항만 부상에 경쟁 압력 확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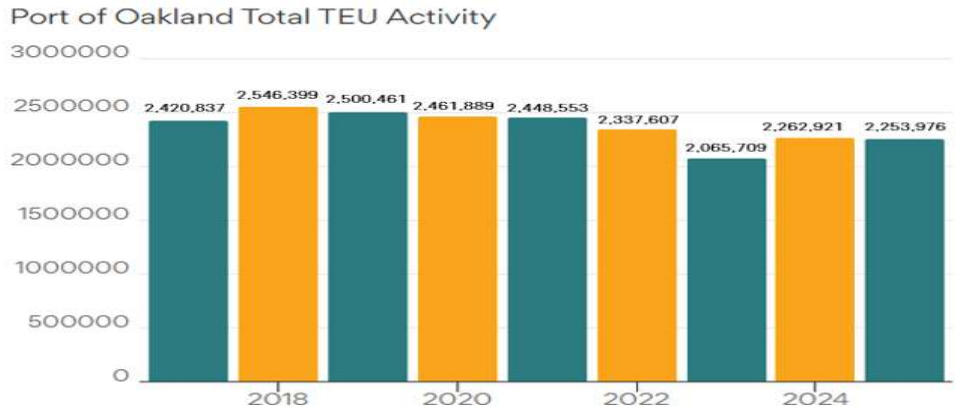
- ▶ 오클랜드항은 美 서부 대표적인 농산물·원자재 수출 특화 항만으로, 불확실한 글로벌 교역 환경에도 지난해 비교적 안정적인 물동량 기록

 - 오클랜드항은 캘리포니아 북부·중부 농업·제조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화물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, 대규모 허브항과의 직접 경쟁보다는 신뢰성과 운영 안정성을 강점으로 전통적인 종건 전략항으로 기능하고 있음
 - 오클랜드항의 '25년 12월 '컨' 처리량은 179,580TEU로 전년 동월 대비 1.7% 감소했으나,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동량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기록함
 - 이는 오클랜드항이 수출 특화 항만으로서 수입 중심 항만 대비 물동량 변동성이 낮은 구조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
 - '25년 12월 적재(loaded) '컨' 물량은 140,050TEU로 전년 대비 3% 감소했으며, 이 중 수입은 12.8% 감소한 반면, 수출 물량은 10.9% 증가해 '수입 부진·수출 강세'라는 구조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남
 - 이러한 흐름은 미국 내 소비 회복은 제한적이나 농산물·원자재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상대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반영함
 - 한편, '25년 12월 공(公) 컨테이너 물량은 39,530TEU로 전년 대비 3.4% 증가했는데, 이는 연말을 맞아 선사들이 다음 해 성수기 및 항로 재편에 대비해 장비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로 해석됨

- ▶ 그러나 오클랜드항을 포함한 美 서부 항만은 캐나다 서부 항만의 부상과 국경 간 철도 네트워크 기반의 물류 재편으로 중장기적 경쟁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

 - '25년 오클랜드항을 포함한 美 서안 항만들은 對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, 아시아~미주 전반의 교역 패턴 변화, 선사들의 서비스 재편 등 복합적인 외부 충격에 직면함
 - 특히 주목되는 변화는 캐나다 서부 항만인 밴쿠버(Vancouver)항과 프린스 루퍼트(Prince Rupert)항의 급성장으로, 이들 항만은 美 중서부를 연결하는 국경 간 철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美 서부 항만을 경유하지 않고도 미국항(US-bound) 화물을 직접 흡수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음
 - 이는 단순한 물동량 분산을 넘어 북미 물류 네트워크 전반에 항만-내륙 연계 구조(Intermodal network)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, 중장기적으로 오클랜드항을 포함한 美 서부 항만에 새로운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
 - 이처럼 美 중서부항 복합운송 화물을 적극 유치하는 흐름 속에서 향후 美 서안 항만의 경쟁 환경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보다는 중장기적인 물류 네트워크 재편 흐름과 직결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2017~2025년 오클랜드항 물동량(TEU) 추이



자료: <https://www.oaklandseaport.com> (검색일: 2026.01.19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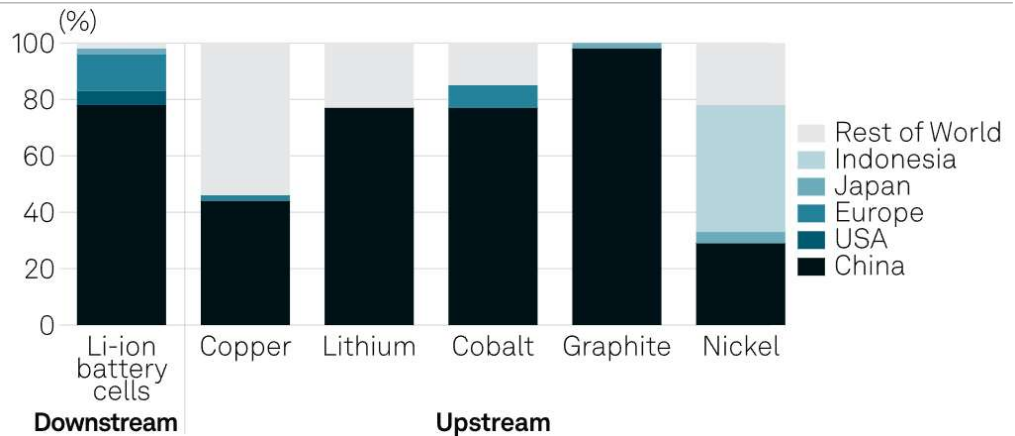
- ▶ 오클랜드항은 수입·수출의 균형을 바탕으로 특정 화물이나 흐름에 대한 의존을 완화하는 한편, 중장기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노력 지속
 - '25년 오클랜드항 '컨' 물동량은 2,253,976TEU로 전년 대비 0.4% 감소에 그쳤는데 이는 관세 리스크, 경기 둔화,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부정적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사실상 '보합 수준'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
 - 연간 기준 수입은 0.9% 감소, 수출은 0.1% 증가해 수입·수출 비중이 거의 50:50 구조를 유지했으며, 적재 '컨' 비중 역시 약 77%로 최근 수년과 유사한 구조를 보임
 - 한편, 오클랜드항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병행하고 있는데 '26년 1월 초 TraPac 터미널에 신규 컨테이너 크레인 2기를 도입함
 - 이는 유럽산 안벽 크레인이 美 서안에 최초로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오클랜드항이 기술적 고도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함

참고자료: <https://www.freightwaves.com> (검색일: 2026.01.19.)

미국·EU, 중국 견제 속 핵심 광물 투자 강화

- ▶ 미국과 EU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핵심 광물 투자 및 공급망 전략 본격화
 - 미국과 EU가 핵심 광물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해 투자와 정책 개입을 확대하고 있음
 -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채굴·가공을 장악하며 전기차, 태양광, 풍력, 수소 설비 등 첨단 산업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
 - 중국의 수출 제한이 국가 안보와 경제 회복력에 위협이 되면서 서방 국가들의 대응이 가속화 되고 있음
 - 전문가들은 '26년을 기점으로 정부 개입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함

중국의 글로벌 핵심 광물 가공 능력 주도 현황



자료: <https://www.spglobal.com/>(검색일: 2026.01.16.)

- ▶ 미국은 정부 주도 투자와 민관 협력을 통해 핵심 광물 자국 내 공급망 구축 추진
 - 미국 정부는 희토류 분야에 1억 3,4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기회를 개시함
 - 국방부가 MP머티리얼즈와 민관 파트너십을 체결해 국내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추진함¹⁾
 - 에너지부는 리튬 아메리카스에 5% 지분 투자를 단행해 네바다 리튬 가공 공장 건설을 지원함
 - 정부는 '쇠퇴 산업 구제'가 아닌 '신규 산업 육성' 관점에서 투자를 집행하고 있음
 -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 프로젝트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있음
- ▶ EU는 제도와 재정 지원을 통해 핵심 원자재 역내 생산 확대 및 수입 의존도 축소
 - EU는 '24년 핵심원자재법(CRMA)을 비준함
 - 특정 전략 광물의 단일 제3국 의존도를 65%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함
 - '25년 3월, 47개 핵심 광물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총 225억 유로 투자 계획을 발표함

1) 4억 달러 지분 투자, 1억 5,000만 달러 대출, 10년 장기 구매 계약 포함됨

- 향후 12개월간 최대 30억 유로를 추가 투입해 '29년까지 수입 의존도를 최대 50% 감축할 계획임
- 남아공, 나미비아, 아르헨티나, 칠레, 캐나다 등 15개국과 핵심 광물 파트너십을 체결함
- 브라질과 협상 중이며, 우크라이나·서발칸 지역과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

▶ 미국·EU,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성 확보 모색

- 미국과 호주는 핵심 광물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10억 달러 공동 투자를 추진함
- 호주는 미국과 EU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서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
- G7 주도의 핵심 광물 생산 동맹(CMPA)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함
- 캐나다는 64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와 함께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함
- 전문가들은 국가 간 협력이 특정 기업을 선별하는 방식보다 공급망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함

▶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장기 사업 기간과 경제성 불확실 등 구조적 과제 부각

- 대규모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광산·가공 시설 건설에는 장기간이 소요됨
- 일부 프로젝트는 경제성 문제로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²⁾
- 미국 내 제조 역량이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
- 자금 조달 속도와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큰 병목 요인으로 지적됨
-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정부의 초기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

참고자료 : www.spglobal.com, (검색일: 2026.01.16.)

신수용 연구위원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2) 텍사스 희토류 정제소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될 가능성 언급됨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국제물류정보포탈

카카오톡 플러스친구 ^{Ch}

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?
 '국제물류정보포탈'을 추가하고 편리하게 받아보세요!

KAKAO 채널 등록하기



1 카카오톡 검색창에 '국제물류정보포탈'을 검색합니다.



2 제일 오른쪽에 있는 '친구추가 아이콘'을 클릭합니다.